

특집

2000년을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전략

지방공기업 재무구조의 건전화 방안

안 용 식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서 론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사적 변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두드러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재정규모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지방공기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도 전체 도시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대상영역이 법 제정 당시의 5개 사업에서 11개 사업, 그리고 15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9개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사업확대가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부문의 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지방공기업적 운영은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 4월 30일 현재 지방공기업의 수는 직접경영방식 173개, 간접경영방식 126개로 총 299개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을 경영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상하수도사업은 전

적으로 직접경영방식에 의해, 의료사업은 지방공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도 대다수가 직접경영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사업이나 시설관리사업은 대체적으로 위탁에 의해 지방공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교통관련사업이나 시장 및 유통사업, 관광사업은 공영개발사업과 더불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주로 민관공동출자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나 토지와 같이 생활 필수적인 사업은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적인 사업은 다양한 경영주체에 의한 운영으로 변화되고 있다.

결국 지방행정에 있어 지방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기업의 경영형태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적 경영마인드가 다른 행정에 비해 중요시되는 지방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방기업의 재무구조적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둔다. 즉 지방기업의 재정상태를 개괄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무제표(특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의미와 이에 따른 재무비율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지방기업의 경영현황 및 재정상태

전체 지방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와 재정상태를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표 1 참조).

우선 세입·세출규모 면에서 지방직영기업은 간접경영방식에 비해 약 2배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비해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이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기업의 경영성과를 당기 순이익과 총수지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방직영기업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나, 간접경영방식은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간접경영방식의 전체적인 손실은 지방공사 의료원과 지

하철공사의 경영악화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 하여 흑자 단체수와 적자 단체수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직영기업의 경우는 흑자 단체수가 적자 단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과 199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흑자 단체수와 적자 단체수의 비율이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흑자 단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는 반대로 간접경영방식은 흑자 단체수에 비해 적자 단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998년 결산 결과 오히려 흑자 단체수

<표 1>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단위:억원)

		세입결산	세출결산	당기 순이익	총수지 비율	흑자 단체수	적자 단체수	자 산	부 채	자 본
직 접 경 영 방 식	1990	29,971	25,868	576	106%	65 ¹⁾	61 ¹⁾	60,305	31,783	28,521
	1991	51,660	47,419	1,420	109%	79 ¹⁾	61 ¹⁾	97,601	54,871	42,729
	1992	59,939	55,327	2,522	112%	142	55	141,092	73,292	67,800
	1993	72,893	65,960	6,087	122%	114	104	193,959	92,534	101,425
	1994	65,975	53,781	5,250	119%	125	101	192,207	92,021	100,186
	1995	74,492	64,575	5,103	119%	110	63	231,322	105,794	125,528
	1996	83,317	72,166	6,857	122%	114	60	258,691	113,390	145,301
	1997	84,201	76,639	8,695	126%	109	63	287,653	119,766	167,887
	1998	72,563	70,698	3,556	111%	102	73	302,504	120,985	181,519
간 접 경 영 방 식	1990	-	-	-	-	3 ²⁾	3 ²⁾	38,254	29,432	8,819
	1991	25,952	24,142	-1,621	81%	5 ²⁾	3 ²⁾	50,525	37,494	13,030
	1992	28,713	28,315	-960	93%	9(3) ³⁾	33	58,318	39,982	18,336
	1993	28,391	26,171	-1,051	93%	19	33	65,636	43,811	21,825
	1994	33,408	29,550	-1,153	94%	24	31	68,955	45,427	23,528
	1995	33,233	30,545	-1,984	89%	25	33	79,730	52,540	27,190
	1996	36,310	32,679	-3,528	86%	26	36	89,507	56,108	33,390
	1997	40,229	35,880	-6,808	75%	27	43	137,591	103,551	34,040
	1998	44,886	42,212	-6,757	78%	45	30	145,744	87,638	58,106

1) 1990년과 1991년 흑·적자 단체수에는 통합공과금과 지역개발기금이 제외되었음.

2) 1990년 1991년의 흑·적자 단체수에는 의료원사업이 제외됨(이는 기존의 도립병원이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료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3) 흑·적자 단체수에는 지하철건설사업, 주차장관리공단 등 3개 사업이 제외되었음.

4) 결산기준이므로 흑·적자 단체수와 실제 지방공기업수와는 일치하지 않음(연도 중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결산기준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음)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에서 재구성.

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8년말 기준으로 지방직영기업은 총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 비해, 간접경영방식은 총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

직접경영방식의 경우 1990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이었다가 1998년 말 기준으로 40%로 감소한 반면에, 간접경영방식의 경우는 1990년의 총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에서 1998년에는 60%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자본의 비중에 비해 부채의 비중이 많음으로써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총자산이 2조 9,080억원인데 비해 부채가 3조 4,922억원으로 자본이 잠식(-5,842억원)된 상태이다.

3. 지방공기업의 재무제표와 재무비율

1)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의 유형과 의미

지방공기업의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를 의미한다(지방공기업법행규칙 제2조). 특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기업경영의 2대 재무제표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1) 대차대조표

(B/S,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점 개념의 스톡(Stock) 정보를 제공한다. 즉 회계연도 초 또는 말과 같은 일정시점에서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인데, 시점간의 스톡 정보를 비교하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같은 재무상태의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상태표라고도 한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며 T자형을 중심으로 차변(왼쪽)에는 자산을 표시하고, 대변(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한다. 따라서 자산의 합계와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같아야 한다(자산=부채+자본).

이러한 대차대조표는 생산을 위한 투자활동과 그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조

달활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즉 대차대조표의 차변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사이의 차액은 생산과 판매를 위한 순운전자본에 해당되며, 고정자산은 생산과 영업이라는 본업의 영위를 위한 시설자금으로 간주된다. 이들 순운전자본과 시설자금의 합계액을 생산과 판매를 위해 투자된 기업의 투자자본(invested capital)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투자와 생산, 소요자금이 조달에 관한 정보가 정리된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이다(강효석·이원흠·조장연, 1997: 55-56).

(2) 손익계산서 (P/L, profit & loss statement, 또는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사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간 개념의 플로(flow)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 기간의 자원흐름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유입(inflow)정보인 수익과 유출(outflow)정보인 비용, 그리고 유입과 유출의 차이인 손익, 즉 흑자·잉여 또는 적자 정보를 제공한다. 즉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수익은 다시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특별이익으로 구분되며 비용은 영업비용, 영

업외비용, 특별손실로 구분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text{손익} = \text{수익} - \text{비용}$ 으로 계산되는데, 이러한 손익계산서는 생산 이후 판매활동의 결과를 정리한 재무제표로서 손익이 발생한 원인 및 과정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수익력의 측정을 통해 장래의 경영활동을 예측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의 재무비율 유형에 따른 건전화 방안

이상의 재무제표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경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재무비율을 유형화하면 유동성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그리고 생산성비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동성 비율과 건전화 방안

우선 유동성비율은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이다. 또한

당좌비율은 유동자산 중 현금화하는 속도가 늦고 현금화의 불확실성이 높고 재고자산 등을 제외시킨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과약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로 신속비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유동성을 높인다는 것은 화폐성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다른 수익성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게 된다(지청, 1986: 456-457).

따라서 보수적인 기업일수록 운전자본이 많아짐으로써 유동성은 커지지만 적극적인 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화폐성 자산에 대한 보유의 정도를 장기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동성과 수익성과의 상반관계(trade-off)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2) 안정성 비율과 건전화 방안

안정성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부채비율, 고정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 재무비율의 의미와 그에 따른 건전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장기적합률은 설비에 소요되

는 자금을 자기자본에 의해 조달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투자금액이 크고 또한 회수·회전속도가 느린 고정자산의 투하자금은 상환기간이 없는 자기자본에 의해 투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사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일부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장기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통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 보통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정부채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고정부채의 비율을 의미하며 장기타인자본의 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러한 부채관련비율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비율이 재무레버리지(leverage)의 개념이다. 즉, 재무레버리지 비율은 대차대조표 항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율로 자본을 조달할 때 자기자본 이외에 추가적인 타인자본, 즉 부채를 조달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Weston, 1996: 74). 만약 부채로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하였을 경우에 부채의 자본비용 또는 이자율이 부채로 조달된

자금을 투자하여 얻게 되는 수익률보다 적을 경우에 자기자본이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와 레버리지 효과를 얻게 된다(김원기, 1997: 368). 따라서 재무 레버리지를 통해 타인자본 의존도를 결정하는 자본조달정책, 특히 장단기 자본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다.

셋째,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은 높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은 안정적이 된다. 대체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업은 사업초기에 투하되는 자본비용이 많고 건설개량투자 와 관련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의존하기보다는 타인자본(채권발행, 지역개발기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자본비용이 일시에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어 지방공기업 요금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된 자본비용은 요금결정시에 단순히 영업비용만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

정한 수준에서 자본비용을 상쇄할 수 있고 수익의 일부를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타인자본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지방공기업 사업의 경영기간(年數)이 짧을수록 더 긴요한 재무비율이라 할 수 있다.

(3) 수익성 비율과 건전화 방안

수익성비율은 매출액 수익성과 자본 수익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매출액 수익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는 매출액순이익률이며, 자본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특히 매출액순이익률은 손익계산서에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비용의 효율성(cost efficiency)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매출액순이익률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가격정책, 인건비 수준에 영향을 주는 임금정책, 재료비 수준에 영향을 주는 구매정책, 이자비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자본조달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성비율은 지방공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무지표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수익구조는 손익계산서상의 분류방식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그리고 특별이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업수익의 제고는 요금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본비용의 일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영업수익의 제고는 지방공기업이 독립채산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공공적·비영리적 성격이 강하게 요구되고 공공성이 강조된 나머지 지방공기업에서는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종래까지의 지방공기업 요금이 비용을 보상하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고쳐 공기업의 원가요소 중에서 운영비 등의 단기비용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의 장기적 채투자비용까지 포함되는 공적 이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공적 규제의 틀 안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이윤을 남긴다고 해서 지방공기업의 사

기업형태화를 예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의 이윤은 기업유지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공적 서비스로 재분배되기 때문이며, 그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최대 난제인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기계의 도입 등에 의해 무인화(無人化)를 시도하여 인원 증가의 억제, 잉여 인원의 정리를 행함과 동시에 현재 근무체제의 재검토, 잡다하게 지급되는 제수당의 정리, 서비스 요금의 정확한 징수,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생산, 효율적인 자금관리, 회계마인드의 정착 및 전산화 등을 진행시켜야 한다.

셋째, 영업외적 수익과 특별이익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은 이자수익을 확대하거나 환차익(손)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관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공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와 당해 지방공기업의 성질상 그 경비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당해 지

방정부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무의 성질 또는 사업 실시에 의한 공공적 이익의 책임 귀속에 따른 지방정부가 몫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 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방공기업 사업이 일반행정과의 종합행정이 가능해진다면 지역 및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공공적 관점에서 지방공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존립목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지방공기업의 경비부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활동성 비율과 건전화 방안

회전율(turnover ratio)로 표시되는 이 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중에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기업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투입된 자본을 끊임없이 회전시키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매출액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회전율을 측정하는 기본항목은 매출액이며, 기업의 활동성을 매출액과 각 자산·부채·자본항목에 대

한 회전배수로 측정된다.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유동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을 예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의 현금회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회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총자산회전율은 자본투자의 효율성(assets investment efficiency)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를 통해 현금보유량, 매출채권수준을 결정하는 신용정책, 재고자산 수준을 결정하는 재고관리정책, 유형자산 수준을 결정하는 투자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장단기로 구분하여 활동성비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매출채권회전율과 유동자산회전율 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고정자산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재고자산회전율은 상품의 재고손실 방지 및 보관금의 절약 등 재고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5) 생산성 비율과 건전화 방안

생산성비율로는 크게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설비투자효율,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자본집약적 사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일반행정과는 달리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므로 퇴직관료의 충원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막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간접경영방식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할 대목이다.

4. 결 론

지방공기업은 일반행정과는 달리 기업적 경영방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의 회계와는 달리 복식부기가 실행되고 있고,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이 존재한다. 특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정보들이 제공되고 있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정보들은 단순한 기업정보로서 존재할 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

한 다각도의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ROA, ROE, EVA 등의 모형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공기업에서도 이러한 모형을 도입하여 보다 철저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본구도가 자율책임 경영체제로 전환된 시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재무관리 방안의 도입은 매우 긴요하다.

참고문헌

- 강효석·이원홍·조장연(1997), 『기업가치평가론』 서울:홍문사.
- 김원기(1997), 『재무관리』 서울:삼영사.
- 안용식·원구환(1994), 『지방공기업론』 서울:대영문화사
- 지 청(1986), 『현대재무관리론』 서울:무역경영사
- 행정자치부(1999),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 Weston, J. Fred(1996),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Financ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